**공정하다는 착각 1차시 논제**

* **자유논제 -**

1. 여러분은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었습니다. 해당 책의 가장 큰 주제는 능력주의가 실제로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완전하게 작동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사회에 말하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본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느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사회에서 말하는 ‘능력주의’란 ‘모두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과 재능에 의해 생성된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한 만큼 ‘보상 혹은 대우’를 받는 시스템을 능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주의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성공까지 사다리의 단과 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능 혹은 부에 의해 성공에 가까운 사다리 층에서 촘촘한 단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배경으로 성공과 한참떨어진 밑에서부터 한 단을 오르기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적 경쟁에서 비롯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능력주의 옹호론자는 그렇다고 말하면서 재능은 ‘행운’이며 덕분에 큰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산다면 그것 역시 우연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른 것은 바꿀 수 없기에 인재선별법,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철저히 한다면 온전하지 않지만 정의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현대 사회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엘리트에 의한 ‘기술관료제적 통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샌델은 이에 대해 기술관료제적 통치는 실패했으며 사회적 연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능력주의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엘리트주의(기술관료제)에 대안으로 가능한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  |
| --- |
| *.. 기술관료적 능력주의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뒤틀어놓았다. 그리하여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명예는 높아지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그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추락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여 또한 과소평가되는 상황에 부딪친다.p.59 …(중략)…민주정치가 다시 힘을 내도록 하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보다 건실한 정치담론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공통 일상을 구성하는 사회적 연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능력주의를 진지하게 재검토함으로써 가능하다.p.61* |

기술관료적 통치 방식은 여러 공적 문제를 기술 전문가들에게 맡김으로써 보통 시민들은 손을 써볼 수조차 없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민주적 토론의 범위를 좁히며, 공적 담론의 내용을 공허하게 하고, 개인들이 점점 더 무력감에 빠지게 하므로 ‘사회적 연대’를 위한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도입했던 참여정부, 정부3.0, 시민참여예산제 등과 같이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다면 전문가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일은 없을 것 입니다.

**선택논제**

1. 현대 사회에서 정부 관료 및 정치인 대부분이 대졸자입니다. 여러분은 학위가 있어야 통치를 한다는 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새로운 지도자로 학위나 그에 준하는 시험(고시, 또는 전문 자격)등을 통한 자격을 일절 갖추지 않은 사람이 나온다면 이에게 표를 줄 의향이 있나요?

|  |
| --- |
| *.. 영국 전체를 통틀어 70퍼센트는 비대졸자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12퍼센트만 그렇다. 하원의원은 열 중 아홉이 대졸자이며 넷 중 하나가 옥스퍼드나 케임브릿지를 나왔다.p.162 …(중략).. 독일연방의회는 83퍼센트가 대졸자다. 2퍼센트도 안되는 의원들만이 고등직업학교(하우프트슐레)가 최고학력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에서는 82~94퍼센트가 대졸자다.p.163* |

능력주의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즘적 반감은 트럼프 당선과 영국에서 예상을 깨고 이루어진 브렉시트 표결에 대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능력주의 엘리트, 전문가, 전문직업인 계층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이벤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 등을 통한 자격을 일절 갖추지 않은 사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힘이 있고 대중이 원하는 정치를 할 역량이 있다면 표를 줄 의향이 있습니다.

1. 부유한 집안일수록 높은 입학점수를 내고, 대학입학이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건은 성적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보여주기에 ‘정의’롭지는 않아도 ‘공정’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성과주의 입시제도에 동의하나요. 동의하지 않나요?

|  |
| --- |
| *…SAT처럼 표준화된 시험은 그 자체로 능력주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배경을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지적인 장래성을 보일 수 잇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SAT 점수와 수험생 집안의 소득이 비례관계를 나타낸다. 더 부유한 집 학생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p31-32* |

성과주의 입시제도는 줄세우기 시스템으로 객관적 지표를 보여주기에 '공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성과주의로 얻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미국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전례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이 치솟고 젊은이들의 자살률은 약 20년 사이 30퍼센트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완벽주의와 번아웃 증후군, 캄핑(camping)과 대학생들의 시험 부정행위 등은 능력주의 전장에서 살아남은 승리자들에게서 보이는 이상증세들 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입시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시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 뿐만 아니라 내신등급제, 고교등급제, 수능난이도 논란에 따른 노력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논란 입니다. 이 논란들이 계속된다면 입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2차시 논제**

**자유논제 1.** 대학 입시에서 시험을 통해 선별하고 남은 인원을 제비뽑기를 통해 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표준점수를 이용해서 학생을 뽑고 상위권 학교의 경우 예비1번에 목숨을 경우 남은인원을 제비뽑기를 통해 선별한다면 상위권 학교들의 경우 부정입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입학관리팀에 청탁금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게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제비뽑기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해서 원하는 학생을 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
| *“때때로 수천 명의 지원자들을 모두 합격시켜 주고 싶다는 충동이 든다. 나는 그들의 지원서를 계단 아래로 집어던져 버리고, 아무나 골라 1,000명을 뽑을 수도 있다. 그래도 여전히 훌륭한 학생들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p288* |

**자유논제 2.** 현재는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봐서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 이러한 방식은 재능에 따라 효과적일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최대한 부당하지 않도록 재능을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직업을 희망하는 산업/직무군에 맞춘 시험에서 보는 과목을 선택하게 끔 하는 것입니다. GSAT 전공필기, 진로를 희망하는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의 지식을 전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전공 관련 특정 자격증을 따면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 등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과별로 좀더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  |
| --- |
| *우리가 재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대학입시의 맥락에서 재능이란 모호하고 둔한 개념이 된다. 아마 수학 신동을 가려내기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재능의 일반적 평가는 더 복잡하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다. (289p)* |

--------------------------------------------------------------------------------------------------------------

**선택논제1.** 기술,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은 통틀어 보았을 때 개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가?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동차, 의학, 건축 등)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의 삶도 풍족해지고 있습니다. 예시로 나온 비극적 죽음의 원인은 자살, 알코올, 약물중독 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소외계층의 삶을 인지할 것입니다. 그들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견고하게 갖추면서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
| --- |
| *그러나 미국 노동 계급의 마음의 상처로 빚어진 현상은 구직 포기뿐만이 아니다. 다수가 삶 그 자체를 포기한다. 최악의 비극적 지표는 '절망 끝의 죽음'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 지난 10년간 계속 늘어난 이런 죽음은 특히 중년 백인 남성 사이에서 많았다. 45세에서 54세 사이의 백인 남성과 여성에게 절망 끝의 죽음은 1990년에서 2017년 사이 세 배로 늘었다.(310-311p)* |

**선택논제2.** 자신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날지 부유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로 살게 될 사회의 모습을 고른다면 능력주의 사회와 귀족제 사회 중에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요?

**능력주의 사회를 고를 것입니다. 귀족제 사회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지는 것이고 계급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예에서 귀족으로 진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주의 사회의 흙수저 같은 핸디캡보다 더 큰 패널티를 안고 사회에 진출한다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라도 하층민이기 때문에 의견이 받아들여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 *..과연 무엇이 그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가를 생각해 보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자신이 부잣집에서 자라날지 가난한 집에서 자라날지 모른다는 전제 하에 어떤 사회를 선택하고 싶은가 따져 보는 것이다. p.188* |